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2008년도 표어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요10:10)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조국을 위한 기도

## 주님 왜 우십니까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이 땅에 공의와 공평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그  
리스도의 평화와 화평이 샘  
같이 솟아오르게 하소서.

주님, 생명권, 자유권, 행  
복권이 보장되는 복음화 된  
통일조국이 어서 속히 이루  
어지게 하소서.

예루살렘 황금성에 무엇이 부족해서 주님은 우셨습니까. 오늘의 대한민국을 보시고 주님은 울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선교사를 2등으로 많이 보낸 한국교회가 있고 1960년부터 1995년까지 36년간 UN이 발표한 세계경제 성장률 1위를 차지한 대한민국에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 나라를 보시고 우십니까.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인간의 나약함에 대한 연민의 정을 눈물로 표출하신 주님께서 나같이 더럽고 못난 인생을 보시고 또 울고 계신 것입니까.

두 달이 넘도록 계속되어 온 쇠고기 촛불시위 앞에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머리를 굽힌 것이 그렇게 슬픈 것입니까.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이 양의 허물을 쓰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들이라는 사실에 놀라신 것입니까. 평택 미군기지 반대, 주한 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맥아더 동상 철거, 국가 보안법 폐지 등 국운을 흔드는 사건들을 주도해 온 이들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국난을 당했을 때 구국운동의 선봉장이 되어야 할 영적 지도자들이고 그들이 공명심과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붙잡혀 백성을 오도하는 것을 보시고 우십니까.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까. 자신과 교회와 조국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에도 피맺힌 눈물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소원하신 자유와 평화와 정의의 나라는 언제 올 것입니까.

사람들은 말하기를 정의 없이는 평화가 없고 평화 없이는 정의도 없으며 자유 없이 정의 없고 정의 없는 자유도 없다고 합니다.

사실 평화 없이 정의는 수립될 수 있어도, 정의 없이 평화는 가능하지 않음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의가 평화보다 선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시하려 합니다. 땀기세택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왕이니 곧 평강이라(히7:1-2)하셨습니다. 의가 평화보다 먼저 세워져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평화는 윤리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살림은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근거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원유와 곡물과 그리고 원자재의 살인적인 가격 상승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시설을 파괴하는 시대의 희극을 연출하면서 핵무기는 감춰놓고 계속 핵을 개발하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치, 경제, 군사, 사회 심지어 종교지도자들도 당리당락, 사리사욕을 버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사명을 주신 우리조국 대한민국 세우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촛불을 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도 그 빛을 세상에 비취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염원이 담긴 촛불을 켜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작금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촛불집회는 이명박 OUT 이라는 정치 시위요, 기도하는 성도들의 거룩한 촛불이 아니오니 주님, 저 거짓의 촛불을 꺼지게 하소서.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하도록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소서. 국민들도 대한민국의 국법을 따라 정당하게 출범한 정부를 더 이상 흔들도록 버려두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주님, 백성들로 하여금 선악을 분별하는 통찰력을 주시어 파괴와 파멸을 바라는 악의 세력에 동조하던가, 건설과 역사의 대의를 따라 전진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가야 하는지를 선택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의 발전과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는 너와 내가 없고, 여와 야도, 우도 좌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나라를 이끌고 가도록 권세를 맡기신 이명박 대통령이 예지와 명철을 갖고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현실에 타협하고 균중의 소리에 야합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백성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원칙을 갖고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끌고 가는 대통령이 되게 하소서.

인간의 몸에서 흐르는 땀과 눈물과 피와 같은 고귀한 액체로 송고한 인격과 위대한 성취와 구원의 승리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먹겠다는 불한당(不汗黨)이 없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땀보다 더 고귀한 눈물로 상처 입은 백성의 마음을 위로하고 씻어주되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심정으로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평화와 정의가 입 맞출 때까지 자유는 없는 줄 아옵니다.

이 땅에 공의와 공평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화와 화평이 샘같이 솟아오르게 하소서.

주님, 생명권, 자유권, 행복권이 보장되는 복음화 된 통일조국이 어서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목사 이중윤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2008년 상반기 전도상 시상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2008년 상반기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날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나가게 하시고, 이에 은혜를 내려 주셔서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상반기에 등록된 새가족은 695명이며, 그 중에 본인등록이 174명(25%), 일반성도 전도등록이 190명(27.4%), 70인 전도대 전도등록이 331명(47.6%)이다.

많은 성도들이 전도에 동참하였고, 그 중 10명 이상 전도의 열매를 맺은 전도한 성도는 다음과 같다.

박이선 집사 조(126명), 임명숙 집사 조(62명), 박길희 집사 조(35명), 박광일 전도사(19명), 최성희 집사 조(15명), 우경애 집사 조(13명), 김동진 집사 조(13명), 김은순 집사 조(12명)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교회 부흥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수고한 성도들의 열심에 감사하며, 이를 격려하기 위해 교회는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전도자를 시상한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승웅 강희자 고금란 곽미숙 구귀순 국산옥 권소라

권영월 권오철 김경현 김경희 김규희 김금희 김길자 김남순 김동진 김미성 김보경 김복순 김상태 김숙자 김영미 김영호 김은순 김장섭 김점숙 김찬진 김창배 김해영 김희순 나가태 남경희 남현주 노정숙 류종기 박 옥 박광서 박광일 박길희 박미경 박미영 박분옥 박성신 박세준 박세진 박수복 박시향 박영숙 박영애 박이선 박정순 박정임 박정희 박진희 박천희 박필순 박하은 박혜진 박화실 배정자 배준길 백승갑 백정순 서경애 서경학 서세준 서순희 서희숙 성순남 손대현 손영호 송인권 신신복 신순복 안미경 안준홍 임성웅 옥희숙 우경애 위성남 위현주 유을상 윤계진 윤선애 윤숙지 윤용미 은기장 이갑연 이계홍 이명숙 이명순 이영미 이옥심 이은희 이인숙 이정연 이진구 이창희 임명숙 장연자 장희정 전하미 정미연 정애신 정연수 정찬주 조경아 조영자 조정란 조현남 주생숙 최봉희 최성희 최영숙 최영인 최원매 최준숙 최향봉 최호승 최희연 하영숙 한상준 허형숙 홍성혜 홍순복 홍정란 홍정혜 홍주현 황보주자 황정아

(총 130명, 가나다 순)

### “이웃사랑·아가페타운 건립 위한”

# 2008 열린바자 준비 시작되다

## 9월4일(목)-5일(금) 2일간

2008 열린바자 준비위원회(위원장 왕경래 장로)는 7월의 무더위 속에서도 알찬 가을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올해 열린 바자는 추석이 9월 중순부터 시작되어 한 주 전인 9월4일(목)부터 5일(금)까지 2일간 교회 앞마당, 1층 로비, 7층과 8층 식당 그리고 한티공원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 동안 우리교회는 매년 가을 추석을 앞두고 서울교회 모든 가족들이 참여하는 열린바자 수익금으로 우리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교회당 현당을 위한 헌금으로 드리는 등 의미있게 사용하여, 이웃의 등대된 교회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이번 바자는 이웃을 섬기고 아가페 타운 건축을 위한 열린바자로 준비되며 수익금을 아가페타

운 건축헌금으로 드리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열린바자 준비위원회는 무더위 속에서도 첫 모임을 갖고 조직을 점검하는 등 준비의 첫발을 떼었다. 이번 열린바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어 많은 열매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한다.



# 금주의 수련회

- 대학부 : 7월16일(수)-19일(토) / 아가페타운
- 장년부 : 7월18일(금) 오후 7시 / 웨스트민스터홀

지난 주 열리기 시작한 2008년 여름수련회가 금주에도 계속된다. 이번 주에는 장년부 수련회와 대학부 수련회가 열린다.

장년부(교육5국장 윤찬오 장로) 여름수련회는 7월 18일(금) 오후 7시 101호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남기고 갈 유산과 희망'을 주제로 김재진 목사(서울교회 협동목사)가 감사로 서는 가운데 열린다.

또한 대학부 여름수련회는 7월16일(수)부터 19일

(토)까지 4일간 아가페타운에서 '열매 맺는 영적 리더'를 주제로 열리며 이종윤 목사와 장석남 목사가 강사로 선다.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은혜받기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기 바란다. 우리교회 모든 이들이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

# 인도 유니온 신학대학원 -장학금 지원-

선교사 100명 이상 파송을 위해 기도하며 실천하고 있는 우리교회는 조법연 선교사(인도)가 사역하고 있는 유니온 신학대학원에 단기선교팀 방문시 미화 일천 달러를 장학금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우상의 나라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통해 많은 열매 맺도록 기도한다.

# 촬영팀(사진,비디오) 창단

멀티미디어단은 지난 3일 이종윤목사님을 모시고 사진,비디오촬영 봉사자를 모집하여 21명의 촬영팀을 구성 하였다.

이는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던, 기존 촬영봉사자를 통합,관리하여 목사님의 사역과 교회의 행사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정기모임화하여 세미나개최 및 교육과 함께 더욱 더 발전된 영상물을 얻을수 있도록 훈련하고, 노력할 예정이다. 촬영된 사진은 서울교회 홈페이지(seoulchurch.or.kr)에서 편리하게 관람 할 수있고,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이에 관심있는 봉사자는 멀티미디어단(703호)에 문의바란다.

서울교회 촬영팀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동호 유혁근 이우성 박희석 박인자 윤오셀 배석훈 김상준 손동혁 황성일 천정운 김병귀 김진경 오명걸 조종화 우명찬 김성주 오주명 이은필 오윤걸 신혜영

# 나눔의 집 기증품 접수



우리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사랑하고 물자를 절약하기 위해 지하3층에 나눔의 집을 개설하여 상시운영하고 있다.

나눔의 집은 성도들이 기증한 의류를 비롯한 각종 생활용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 번 목회자 신학세미나 참석자들과 성도들의 뜨거운 호응 아래 그 동안 기증받은 물건이 많이 소진되어 지금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도들 가정에 현재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의류 등을 교회에 기증하면 나눔의 집에서 훌륭한 상품으로 재탄생하여 한 점당 1,000 원에 판매되고 수익금은 선한 사업에 사용된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이우선 원로장로 (2교구)

하나님께 영광을!  
 삭막한 서울도심을 벗어나 아름다운 강과 산을 바라보며 버스로 1시간 10여분 만에 낮 익은 듯한 건물 이 시야에 들어왔다.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조성한 아담한 야산을 뒤로하고 펼쳐진 3층 건물과 부속건물들 그리고 아름답게 가꾸어놓은 수목과 잔디밭... 곧 아가페 타운 리모델링 현장이다.  
 대치동 서울교회에 한티공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은 수십만 평에 수목이 무성하고, 체력을 단련할 수도 있고, 등산도 하기 좋은 아담한 야산을 아가페 타운에 덧붙여 주셨다. 버스에서 하차한 250여 명의 성도들의 눈빛에는 감격과 설렘이 깃들여 있었다.  
 건축위원장 오정수 장로를 비롯한 위원들과 안수집사, 그리고 점심을 준비한 마리아 전도회 회원들이

비지빔을 흘리며 봉사하시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으며, 참여한 모두의 얼굴마다 하나같이 감사와 기쁨에 흠뻑 젖어있는 모습이다.  
 콘크리트 바닥에 스펀지를 깔고 앉아서 아가페 타운 리모델링 감사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17년 전 서울교회를 설립하면서 드렸던 예배를 떠올리게 할 정도로 뜨거운 찬송과 열렬한 기도, 심금을 울리는 말씀으로 이어졌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하의 말씀(눅 12:16-21)을 선포하신 이종윤 위임목사님은 말씀 도중에 아가페 타운 건축현금을 드린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에 목이 메어 말씀을 이어가지 못하시며 눈시울을 적시므로 회중은 숙연하여졌고, 아가페타운 건축에 대한 새로운 다짐이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지며 결의를 굳건히 하였다.  
 감사예배를 드린 후 오정수 장로는 경과보고 도중 중 맨손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이종윤 위임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어 설립예배를 드린 논현동에서부터 대치동 예배당 건축당시까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인간의 상상을 뛰어 넘어 이루어졌음을 회상하며 감격의 눈물에 말을 잊지 못했다. 또한 새로운 사명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므로 모두가 새 마음 새결단의 장이 되었다.  
 먼저 된 자나 나중에 된 자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되어 영광돌리기를 소원했다.  
 아가페타운 건축 시작종이 널리 울려 퍼졌다.  
 멍에를 같이 메고 사랑의 뜨거운 열정으로 소리 없이 울고 있는 장애우와, 노약하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활짝 웃으시는 그 날을 위해, 헌신 또 헌신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임하기를 간곡히 기도드린다.

오! 진리의 등대 서울교회여,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만민에게 전도 - 인도 단기선교팀

# 나마스떼

박재원 (대학부, 인도단기선교팀)

저는 이번에 인도로 단기선교를 떠나는 대학부 박재원입니다. ‘나마스떼’는 마라티어로 ‘안녕하세요’란 인사말입니다. 선교를 가서 가장 많이 하게 될 말이지요.  
 저는 뒤늦게 단기 선교팀에 합류하였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포기하고 있었지만,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망설임 없이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지금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지낸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팀원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가 더욱 큼니다. 단기 선교를 떠나는 날이 다가올수록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생깁니다. ‘날씨나 음식 때문에 고생하지 않을까,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



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나의 행동들이 복음에 방해가 되면 어쩌나...’  
 하지만 이런 고민들은 잠시일 뿐,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도구이며,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모든 걱정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성도님들께서 단기선교팀을 위해 꼭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을 때, 저희는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길 인도 사람들의 마음 받아 준비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들에게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 또 다른 곳에 심겨질 것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 10:8b).  
 단야와드!(감사합니다)

# 서투른 그림

정애신 권사 (11교구)



내 길  
 지나온 나날들  
 세월의 화선지 위에  
 그려 놓은  
 시간의 무늬

열매 맺지 못한  
 나뭇가지에  
 찬바람만 스치고  
 뒤돌아 본  
 삶의 뒤안길

이제 한 밤이 지나고  
 눈부신 아침햇살  
 떠오르면

열매 맺는 새로운 그림  
 일곱색깔 무지개로  
 덧칠하리라.



# 남기고 갈 유산과 희망

## 7/18 (금) 오후 7시 · 웨스트민스터 홀

윤찬오 장로(교육5국장)



성도의 4가지 기본생활은 '말씀생활', '기도생활', '교제생활', '증거생활'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말씀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뜻과 깨달음, 영적 삶의 건강진단과 치유와 회복의 처방은 말씀의 예리한 검과 말씀의 거울, 말씀의 능력 없이는 불가능하며 곧 말씀순종으로 인한 성령의 열매가 신앙생활의 척도이며 삶의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알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더 바른 신학적 근거에 의하여 철저히 배우고 부지런히 읽고, 익히고, 연구하고, 묵상하여 매일 매순간 생활 속에서 구속의 은총과 구

원의 감격으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증거 해야 합니다. 몸 되신 서울교회는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중심의 목회와 교육이념으로서 천국시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교인 학생화를 위한 일관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계속해 온 장년부 여름수련회는 7월18일 금요일 오후 7시에 김재진 목사님을 강사로 '남기고 갈 유산과 희망'이라는 제목 하에 성령 충만한 은혜의 잔치를 개설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주님이 간절히 오라고 부르시는 음성을 외면치 마시고 부르심에 합당하신 주님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는 아주 특별한 찬양대인 서울 장로성가단을 초청하여 찬양을 드린다. 장엄하고 육중한 소리의 남성으로 구성된 이 성가단은 1987년 5월25일 창단하여, 올해 창단 21주년을 맞았으며 찬양을 통하여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교회 일치 운동에 기여할 목적으로, 초교파적 장로들로 구성되었다.

현재 9개 교단, 83 교회, 110여명의 단원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 성가단은 지금까지 정기 연주회 11회, 교회 순회 예배 55회, 전국 장로성가단 연합 연주회에 8회, 각종 기관 초청 연주회에 43회, 해외 순회 연주회 7회, 국가조찬기도회 찬양 3회 등 다양한 찬양활동을 통해 복음 선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휘에 숙명여대 권순호 교수(충무성결교회 시무장로) 반주에 조명안 선생이 수고하고 존귀하신 주(B. Harlan) 외에 4곡으로 찬양 드린다.

### 동정

- 이사 : 정홍도 집사 김명애 집사 가정(3교구) 역삼1동 794-10 502번지
- 개업 : · 오치열 집사(11교구),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 테헤란 오피스빌딩 1101호(T. 018-357-8471)  
· 이상용 성도 최정희 성도(1교구) '우리제일의원'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80-8  
· 이희민 집사 이경실 집사(3교구) (주) 한라 T & C, 스크린골프 동대문구 전농동 647-1 전농프라자 5층 T. 2214-7400
- 주간식당 봉사 : 루디아전도회(7.13) 뽕뽕전도회(7.20)
- 금주의 식사 : 김광흥 집사, 이정임 성도 가정(자녀결혼 감사하며) 교회제공

### 예배 및 집회

| 구분    | 시간             |
|-------|----------------|
| 주일예배  | I부 오전 9시       |
|       | II부 오전 11시 20분 |
|       | III부 오후 2시     |
| 찬양예배  | 주일 오후 5시       |
| 영어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   |
| 수요일예배 | I부 오전 11시      |
|       | II부 오후 7시      |
| 금요기도회 | 오후 8시30분       |
| 새벽기도회 | 오전 5시30분       |



# 참 열매

## 7/16(수) - 7/19(토) · Agape Town

김필구(대학부 회장)



대학부는 오는 16일(수)부터 19일(토)까지 "참 열매"라는 주제로 아가페타운에서 수련회를 가질 예정이다. 하나님은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기 원치 않으신다. 하지만 부족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이번 수련회 기간에는 사흘간의 저녁 집회를 통하여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혼란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열매 맺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늘 우리를 안아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열매 맺는 영적 리더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특별히 여는 수련회와 달리 이번에는 교회 안에서

의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하여 나 자신과 타인의 행동유형을 파악하며, 나아가 서로를 어떻게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지를 배우는 <피플퍼즐 세미나>가 특별로 진행될 것이다. 이를 통해, 기독교 청년에게 꼭 필요한 섬김과 사랑의 덕목을 깊이 배우고 체험하게 된다.

물론 여러 가지 즐거운 야외활동과 게임,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한 풍성한 교제도 빠지지 않는다. 수련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회다. 특히 대학부 시기의 수련회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부여주실 크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장이다. 이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입을 모아 조언해주시는 바다. 이 소중한 기회와 은혜를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한다.

##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올해 안에 한 가정 이상 전도하게 하소서.
2. 아가페 타운 건립 위해 헌금을 바친 이, 작정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3. 아가페 타운 건립에 방해꾼 없도록
4. 정국이 안정되고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 교회오시는 길

